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3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알게 하옵소서

얼음 깨기

‘다시 시작’

교회행사

2024년이 시작된 것이 바로 어제 일 같은데,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 앞서 계획하였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과는 다르게 몸도 마음도 흐트러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1. 새해에 계획했던 것들을 나눠보세요.
2. 잘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새로운 각오를 나눠보세요.

3월

- 3일 목장 모임 시작
성례식
- 17일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
종려 주일
- 24일 (성찬식)
- 25-30일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31일 부활 주일

경배 찬양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선교

[김민구 선교사]

일본

1. 교회 성도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2.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도록
3. 코람데오 전도회를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고, 협력선교사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있도록
4. 선교사 가정이 사역을 잘 감당하며,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소식

1. **목장 모임 시작** 3월 3일 주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함께 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 하늘 가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2. **진실한 공동체를 향한 첫걸음 과정 2기**
 - 시작: 4월 7일 주간부터 12주
 - 내용: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3주), 풍성한 삶의 첫 걸음(5주), 더가족 세미나(4주)
 - 대상: 마을장, 목자 및 향존직(3기부터 전교인 대상)
 - 문의: 각 지역 담당 사역자
3.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회**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 일시: 3/25~3/30, 시간: 6시 * 5:50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 장소: 3층 레위의 장막

한문장 큰 울림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 라인홀드 니버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 14:22-24)

탐욕을 좇은 가롯 유다, 배신 (17-21절)

친밀함이 넘치는 식사 교제의 자리, 그것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17-21절). 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나는 아니지요?’ 차례로 반문합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속마음이 들킨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도를 감춘 채 다른 제자들처럼 태연하게 반문했다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마 26:25). 자신도 알고 주님도 아는데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에게 나사렛 예수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 기대를 채워줄 스승을 바랐다가 실망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나눔] 말씀이 이야기 하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바라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있다면 나눠 주세요.

주님보다 자신을 믿은 베드로의 장담 (27-31절)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주님은 감람산의 찬미 속에서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는 냉엄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예고하십니다. 주님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속 13:7)”라는 예언을 인용하여 주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을 교훈하셨습니다. 거듭되는 경고와 우려에도 베드로는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29절), 심지어 “죽는 데까지(31절)” 따라가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 없는 의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32-41절). 누구보다 큰 소리치던 그는 결국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주님의 제자됨을 부인합니다. “철저히”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66-72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다짐을, 기도보다 자기 확신을, 주님보다 자신을 더 믿었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하고도 조금만 어려워지고 손해가 되면 모든 척하는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눔] 주님 보다 나의 다짐, 나의 능력을 의지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 주세요.

주님, 목숨을 건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 (22-26절)

유월절 식사 때 가장(家長)이 식탁에 놓인 음식의 의미를 설명하듯,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를 통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려는 일의 의미, 즉 자기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 토대,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주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이후 그들은 마치 이 언약을 시험하고 보란 듯이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 성찬을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은 아브라함(가문, 가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민족)이나 다윗(왕조)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유다는 배반하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유다는 탐욕을 좇다가 배신하고,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신을 더 믿다가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호언장담의 연약한 인생들 사이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인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찬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입니다.

[나눔] 처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 했을 때를 떠올려 보고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때 들었던 감정은 어땠는지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성찬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주일 말씀 [배신과 장담 사이에서 세우신 새 언약 / 마가복음 14:22-31]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시다.

기도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